

현대불교 독자가 읽은 이 책

이 세상에 당신과 함께 있어 기쁩니다

길고 길었던 겨울이 이제는 정말 물러간 것 같다. 차가운 바람 사이를 비추는 햇살도 따스하기 그지없고, 앙상한 나무 사이로 연분홍 진달래가 흐드러지게 피었으니 말이다. 이렇게 때가 되면 새싹이 돋고 꽃은 피는데 왜 빨리 봄이 오지 않느냐고 조바심 내던 날들이 많았다. 봄을 온통 뻗어가 버린 것 같아서 꽃샘추위가 너무 밍고 싫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무엇이든 쉽게 단정하지 말고 쉽게 숙단하지도 말고 기다리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 짧은 글을 읽는 순간 맥이 탁 풀렸다. 때가 되면 어떤이 올 봄을, 내 삶이 힘들다고 봄이 오는 것 하나도 참지 못하고 서들렀다는 느낌! 아마도 내 마음이 참지 못했기 때문이

퍼냈다. “기도는 간절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줍니다. 새벽마다 쓴 이 글을 읽어 보면 때로 제가 썼다기보다 어떤 거대한 손길 하나가 제 마음에 와서 써놓고 간 글 같기도 합니다.”라고 말하는 성전스님. 것처럼 글을 읽다 보면 누군가가 우리를 정말로 가야 할 길로 인도하는 것처럼 스님의 독백을 통해 인생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 글을 읽는 모든 이의 소원이 이루어지길! 행복해지길! 마음이 평화



사람에게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로워지길! 이 세상에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적인가를 알 수 있게 되길! 성전스님의 바람처럼 글을 읽다보면 겨울의 묵은 때가 씻겨 내려가듯 마음이 정화되는 느낌을 받는다. 누군가가 내 마음을 위로해주는 그런 느낌!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알려주든 그 사람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 볼 것을, 내 마음을 낮추고 겸손해질 것을, 그리고 결국은 모든 세상사가 내 마음에 달렸음을 스스로 깨닫게 한다. 마음의 상처가 덧나지 않고 아물게 한다.

이 세상에 당신과 함께 있어 기쁩니다 | 성전 지음 | 마음의 숲 | 1만 800원

강지숙

흑산도 아이들 이야기 '섬마을 소년들'

교도소에서 근무 중인 한 교도관이 몸은 가난했지만 마음만은 부자였던 유년 시절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섬마을 소년들〉은 2002년 출간됐지만, 세상의 빛을 보지 못했던 책이다. 2003년부터 8년째 중학교 3학년 국어교과서에 일부 내용이 실렸지만, 무명작가인 관계로 교과서에 이름 석 자조차 제대로 실리지 못하는 불운을 겪었다.

이 책은 1960년대 흑산도에서 나고

자란 저자가 가난의 질곡 속에서도 해맑은 섬마을 아이들의 모습을 그려냈다.

책을 읽다보면 정지간(부외), 꽃가화단 등 생소하지만 정감 있는 전라도 사투리와 1960년대 초근목피 허먼 시절, 정부에서 배급되는 가루우유를 먹고 배탈난 모습 등 아련한 듯 정겨운 이야기들을 수필 형식으로 만날 수 있다.

섬마을 소년들 | 황용희 지음 | 멘토프레스 펴냄 | 1만원

이어나는 기자

용어 풀이 No! 부처님 마음 되기 Yes!

초심자를 위한 '부처님께 다가가는 방법' ... 선배불자 목경찬이 들려주는 불교 알기

운 좋게 불법을 만나 부처님 가르침에 감화돼 이 경전, 저 경전 들춰보고 참선도 해보고 절도 해보고 사경도 해보고 염불도 해본다. 경전을 읽으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알 것 같지만 어렵풋할 뿐 확실히 눈에 들어 오지도 손에 잡히지도 않는다.

불교를 처음 접한 사람들, 불교를 알고 싶은 사람들은 궁금하다. “어떻게 하면 부처님 가르침을 따를 수 있을까?” “초발심시번정각(初發心是便正覺)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초보불자에게는 어리둥절하고 아리송하기만 하다.

〈부처님께 다가가는 방법〉은 이제 막 불교에 입문했지만 방향하는 초보불자를 위한 책이다. 기존의 신학입문서들이 난해하고 어려운 불교용어를 풀이·해석하는데 초점을 맞췄다면 이 책은 부처님 제자로서 마음을 어떻게 가져야 하는지, 미래의 부처님으로서 평소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에 노력을 기울였다.

〈법화경〉 ‘관세음보살보문품’에는 “관세

음보살님을 생각하면 불 속에 들어가더라도 불에 타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있다.

초보불자라면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상징적인 의미로 치부해 버릴지 모른다. 저자 목경찬은 “저 같은 경우는 현재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은 잠시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부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지? 지금 관세음보살을 생각하면서 촛불에 손가락을 넣으면 분명히 뜨거운데, 왜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 라고 요...”하면서 “세 가지 마음 자세로 이해해야 합니다. 바로 대신심(大信心), 대본심(大信心), 대의심(大疑心)입니다”고 강

조한다.

저자는 책에서 ‘믿음, 하심, 발보리심, 기도의 힘, 참회, 발원, 선지식, 역경, 도량, 연기법, 불성’ 등 불교에 입문하면 가장 많이 듣고 이야기하는 단어들을 경전, 영화 이야기 등을 예로 들어 소상하게 설명한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가족의 건강, 경제적 안정 등 물질·정신적 어려움에 대한 해결을 얻고 부처님에게 복을 구하고자 절을 찾는다. 또 초보불자들 중에는 ‘불교=기복신앙’처럼 불교 이미지가 부정적으로 다가오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저자는 “단지 기복이라고 비판하기 이전에 살펴봐야 할 것이 있다”

며 “마음 저변에는 이렇게 하면 부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라는 순수한 마음, 간절한 마음, 믿음이 깔려 있다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에 저자는 “기복이라 함부로 비판하지 말라 너는 누구를 위해 한 번이라도 간절한 기도를 하였느냐”며 안도현 시인의 ‘너에게 묻는다’를 각색해 재밌는 시도 들려준다.

책 제목 〈부처님께 다가가는 방법〉은 어떠한 수식어도 없이 다소 투박하게 보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제목 그대로 눈뜬 잠남마냥 떠들떠들 불교를 알아가고 있는 초심자에게 선배불자가 어떻게 마음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들려주고 있어 이보다 더 알맞은 제목도 없다. 저자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평소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부처님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설명한 책이다. 책의 제목이 의미하는 바가 이와 일맥상통한다”고 설명한다.

부처님께 다가가는 방법 | 목경찬 지음 | 조계종출판사 펴냄 | 1만원

이어나는 기자 bohyung@buddhapia.com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생태기행

‘산사의 숲’ 시리즈 여섯 번째 ‘봄빛에 취하다’

빌딩숲 사이로 핀 꽃들이 반갑다. 봄이다. 도시에서 만나는 봄꽃이라고 해 봐야 개나리, 목련, 진달래, 벚꽃 등 몇 종 되지 않지만 우리는 그마저도 이름을 몰라 빨간 꽃, 노란 꽃, 흰 꽃이라고 부른다. 어찌 꽃뿐이라.

그러면서도 빌딩 이름은 잘도 외다. 빌딩숲이 아름답고 예쁜 것도 아니건만 사람들은 건물이 자리한 땅 값, 임대료, 아파트 관리비, 주차장 높이, 호텔 구조는 살살이 뒤져 꿰뚫고 있어야 속이라도 든든한 것 같이 행복해 한다. 헛헛한 중생들이 사는 방식이다.

〈산사의 숲, 봄빛에 취하다〉는 저자가 7년 동안 108사찰에 생태기행을 다니며 맺은 인연을 풀어 놓은 책이다. ‘산사의 숲’을 주제로 기획된 10권의 기획 시리즈 중 6번째 책이다. 책은 단순한 사찰 소개서가 아니라 “먼 훗날 이 땅에 살 사람들에게 오늘의 산사의 숲을 보여주고 싶다”는 작가의 간절한 염원이 담긴 사찰 주변 생태도감이다.

하지만 처음부터 저자의 발원이 딱 다가오는 않는다. 저자가 원하는 생태기

행 방식대로 전체에서 세부로 책을 들여다보고 나서야 원대한 저자의 발원과 그 묘미가 느껴진다.

책 겉표지부터 한번 가볍게 훑는다. 가뻛던 사람이 소개된 곳에서는 옛 추억을 떠올리며 사진을 살핀다. ‘이건 뭐지? 산이네, 새네, 나무네, 숲이네, 나비네, 절이네’라며, 그리고 다시 책장을 펼쳐 작가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게 뭐냐? 왜 눈이 지옥사촌냐? 까막딱따구리? 따비 짜리?’ 하며 훌쩍한 미소가 흘러나온다.

가뻛던 사람에서 쉽게 볼 수 없었던 것들을 직접 확인하고 나서야 저자가 들인 공이 느껴진다. 그것은 작은 관심과 애정으로 쉽게 보이지 않을 것을 사진에 담고 보존하기 위해 실 없는 발길을 내딛은 선명한 흔적이다.

다시 보자. 곳곳에 숨은 저자의 깊은 의도가 보이게 시작한다. 저자는 산사의 숲에서 일어나는 개발 사업과 불교 내부의 자해로 밖에 보이지 않는 대형 불사, 굴착기가 강바닥의 모래와 자갈을 긁어 실어내는 눈 시린 장면 등을 고발하고 있다. 이것은 저자의 사명이었다. 저자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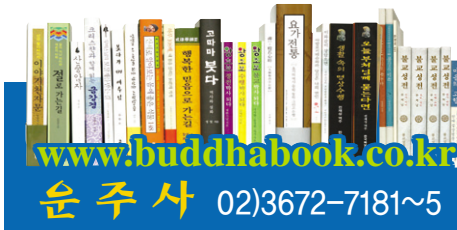
“더 이상의 사찰 숲 환경 파괴는 막아야 한다. 우리에게도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숲을 물려주어야 할 사명이 있다”고 분명하게 밝혔다.

저자가 말하는 생태기행은 ‘눈으로 직접 보고, 귀로 들으면서, 아름다움에 감탄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유심히 살펴보는 것’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애정’과 ‘관심’이다. 질 들뢰즈는 “사랑은 그 사람 자신에게 고유한 모습을 찾아내 준다. 그러나 그 고유함은 언제나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본인 자신도 식별하지 못하고 있던 그 사람 내부의 다양성을 발견하는 것, 그 사람의 다양성을 나의 다양성과 결합시키는 것, 그리하여 서로의 다양성이 마주치는 가운데 서로의 뚜렷한 고유성을 발견해내는 것, 그것이 사랑이다”고 말했다. 저자에게 사랑의 대상은 자연이었다. 그것은 스님들의 수행공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Table with 4 columns: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Lists top 10 Buddhist books for the week.

※불서출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간을 넘어 아름다운 숲속의 모든 생명이었다. 애정과 관심이 없으면 멋들어진 사찰의 숲, 봄빛에 취한 사람은 커녕 내 주변의 소중한 것도 놓치고 말 것이라는 경고다. 우리는 어디에 취해 있었는가? 산사의 숲, 봄빛에 취하다 | 김재일 지음 | 지성사 펴냄 | 1만 7000원 이상인 기자

Advertisement for Zen Paradise featuring a portrait of a man and books '실증설' and '방거사어록'. Text includes '전강 대선사님 인가 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저' and contact information.

Advertisement for '새는 지붕' (Birds on the Roof) by Daehyeon Kim. Text asks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nd provides contact info for Daehyeon Kim.

Advertisement for Super Ener-Tec (슈퍼에너텍) energy-saving devices. Text highlights '기름값의 1/5 이하로 절약되는 슈퍼에너텍 순간전기보일러' and provides contact info.

Advertisement for Buddhist Association (종교법신 획득! 영) regarding '간부 및 중도 입종안내'. Lists features of the association and provides contact info for Daehan Buddhist Association.